

산 립 경 제 (山林經濟) - 2 -

김 영 진

<농림부축산국장·농박>



養鷄法 設一大園 四圍築墻高丈許 棘遮其頭 中築一行墻 分爲兩園 園內名作一屋 方廣丈五 屋下懸筐(一云墻內 四方各置四大鷄栖) 令雞宿菴二月間 先於左園內 耕地令熟做秬(粘黍) 粥(一只曰粥) 洒之 覆以草二日盡 化爲虫 便以雌鷄二十隻 大雄雞五隻(一曰十雌一雄) 養於其中 左園虫盡即斷之 右 依上再用粥洒之 如此則雞自肥(俗方多積穀糠於園內 洒水令濕則 虫自生 可作雞食) 園傍種藟黍許以取蔽蔭 至秋收子又可飼 雞易爲肥長

닭을 기르는 법, 커다란 포전(圃田)을 만들고 사방의 들레에는 사람의 키만큼의 높이로 담(牆)을 쌓고 그 위에 가시나무로 막아둔다. 포전의 중간에 한줄의 담을 쌓아 포전을 두개로 나누며 나눈 각 포전에는 각각 한채의 닭장을 짓되 넓이는 한길반이 되게하고 닭장안에는 광우리를 만들어 달아낸다. (일설에 이르기를 닭장안에 사방으로 각기 네개의 큰 둥우리를 만든다고 한다). 닭으로 하여금 2월달에 알을 품도록 한다. 먼저 좌측의 포전안을 갈아 덮고 기장을 삶아 죽을 쑤어(찰기장으로 만든 죽) 뿌린(洒) 다음 물을 덜어둔지 2일만에 벌레가 화하여 생기게 된다. 암탉 20마리와 수탉 5마리(일설에 이르기를 암탉 열마리와 수탉한마리)를 그 안에 기른다.

좌측의 포전에 있는 벌레들이 다 없어지면 곧 닭을 우측의 포전으로 몰아버린다. 앞서 말한대로 다시 출을 뿌리어 실시하며 이와같이 계속하면 닭이 스스로 살이 오른다고 한다. (세속에서 하는 방법에 각종곡식의 거종류(糠類)를 포전에 쌓아두고 그곳에 물을 뿌리어 습기가 차게하여 든즉 벌레가 스스로 생기게 되며 가히 이를 닭의 먹이로 삼는다고 한다.)

포전의 주변에는 수수(藟黍)를 심어 포전이 그늘지게 하여주고 가을에 이르러 수수의 종자를 수확하여 먹이면 닭이 쉽사리 살이 오르고 잘라라게 된다고 한다.

○穀產法 ○取雌雞去雄 作栖窠窠多與穀令 肥充則一雞生百餘卵 不雞食之亦無咎(雞卵箇有成兩雛者)

○곡산법 ○수탉을 버리고 암탉을 취하여 둥우리를 만들어주고 많은 곡식을 주어 살이 오르게 한다. 살이 충분히 오른즉 한마리의 닭이 백여개의 알을 낳게되니 병아리로 하지말고 먹어도 허물이 될게 없다. (계란한개는 두마리의 병아리가 있어야 이루어진다.)

註 현대에는 계란이 보편화된 영양식품이나 산림경제가 저술될 200여년전에는 계란은 먹기를 꺼린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왜냐하면 병아리로 깨지말고 계란으로 먹어도 허물이 될게 없다고 한 것은 당시에는 계란을 먹는 것을 죄과시하였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옛글(古書)에는 이런 구절이 많다. 예컨대 잠상관계(蠶床關係) 문헌에도 누에기르기는 자기가족용의

의복을 만들기에 축할정도의 누에만을 기르라 하였는데 그가닭은 누에고치에서 실을 킬때 뜨거운 열탕 속에서 고치가 이리저리 맴도는 것은 뜨거움을 견디기 어려워 그러므로 이를 볼때 어찌 측은한 생각이 없드느냐는 것이다. 이와같이 계란먹기를 허물되게 생각한다면 번데기의 죽음이 측은하다는 것은 그 사상적 연원이 유교(儒敎)의 인사상(仁思想=惻隱之心 仁之端也)에서 온것이라기 보다는 여러가지 면에서 고찰할때 우리민족의 정신세계를 수천년 지배하여왔고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불교(佛敎)의 살생금지(殺生禁忌) 인과응보(因果應報) 회생윤회(回生輪廻) 사상에 영향된 바가 클 것으로 사료된다.

雞雜病治方 ○眞麻油灌之立愈 治雞中蜈蚣毒方 ○研茱萸飼之 治雞哮喘方 ○白菜(머회)葉包鼠糞蘸香油極之 治雞疫方 ○一雞染疫 類雞皆死 即須以藍盛雞 又口懸掛或移於閣上則免 ○豬肉切碎喂之愈 又以雄黃爲末飯喂之愈 ○生雉和眞末爲丸 大雞則七八丸 或十丸 小雞則令吞二三丸妙

닭의 여러가지 병을 치료하는 법 : ○참기름을 먹이면 낫는다.

닭에 지네의 독이 들었을때에 치료하는법 : ○산수유를 달여서 먹인다. 닭이 사나운것을 치료하는 법 : 배추잎에(혹은 머회) 쥐의 똥을 쌓아 향유에 담갔다가 억지로 먹인다.

닭의 계역을 치료하는 법 : ○한마리의 닭이 역병에 전염되면 나머지 닭들도 다 죽게 되므로 곧 모름지기 쪽(藍)으로 닭을 기운차리게 하거나 또는 입을 달아매거나 높은 곳에 올려 놓은 즉 면할 수 있다.

○돼지고기를 잘게 찢르고 다져서 먹이면 나으며 또 수탉은 밤찌저기를 먹이면 낫는다. ○오나무의 생즙을 고은가루에 섞어 환(丸)을 지어 큰닭이면 7~8개 혹은 10개를, 작은 닭이면 2~3개를 먹인다.

鵝 鴨

擇種 ○亦取桑落時生者爲良形 小毛茂脚細短者 善守窠育雛 ○鵝鴨母其頭欲小 口上齧有小珠滿五者 生卵多 滿三者爲次 ○鵝鴨宜以一歲再伏者爲種 且貪伏不起者可爲種 其數起者 不任爲種 大率

鵝三雌一雄 鴨五雌一雄

거위와 집오리

품종선택 ○뽕잎이 떨어질때 생긴것을 취함이 좋은 체형을 하고 있으니 잔털이 무성하게 총생하고 다리가 가늘며 짧고 등우리(窠)를 잘 지키며 새끼를 잘 기른다.

○거위와 집오리는 그 어미의 머리가 작고 입부리 위에 작은 구슬같은 것이 5개가량 가득히 물려있는 놈은 알을 많이 낳고 3개의 구슬같은 것이 물려있는 놈은 적게 알을 낳는다.

○거위와 집오리는 일년에 두번 알품기를 하는 놈을 종계(종금)로 하여야 한다. 또한 알품기를 탐내어 잘 일어나 나오지 않는 놈을 가히 종자로 삼아야 한다. 자주 들락날락 하는 놈은 종란을 맡기지 말아야 한다. 암놈을 많이 거느리고 다니는 거위는 암놈3 숫놈1의 비율이며 집오리는 암놈5 숫놈1의 비율로 거느린다.

鵝鴨抱時 大鵝十子 大鴨二十子 小者減之 其貪伏不起者 須五六日一與食 起之令洗浴 鵝鴨皆一月雛出 量雛欲出時四五日之內 不可聞鼓聲 砧春磨車及轍 大叫猪犬等聲 又不可用淋灰器 作菴窠 勿令新產婦觀 看須五六日 凡鵝鴨六年以上老 不復生伏宜去之 少者初生伏 又未能工 唯數年之中佳耳

거위와 집오리가 알을 품을때 큰 거위는 10개 큰 집오리는 20개의 알을 품도록하나 작은 거위와 오리는 그 수를 감할것이다. 알을 품고 일어나지 않는놈은 모름지기 5-6일에 한번 먹이를 줄 것이며 일어나 목욕을 시킬 것이다.

거위와 집오리는 모두 1월에 병아리가 나오나 병아리가 나오고자하는 시기를 헤아리며 4~5일 내에는 북(鼓)소리, 방아젓는 소리(舂), 갯돌질하는 소리(磗), 수레바퀴 소리(轍), 돼지나 개가 크게 울부짖는 소리들을 들리지 않게 하여야 한다. 또한 갯물(淋灰)을 받던 그릇(器)을 알품는 등우리로 삼지말 것이며 새로 해산한 부인이 모를지기 5~6일간은 보지 말아야 한다.

무릇 거위와 집오리는 6년이상 늙으면 다시 알을 쌓거나 알품기를 하지 않나니 마땅히 제거할 것이며 어린놈은 처음 알을 낳고 또 알품기

를 하더라도 능숙하게 짓지 못하나니 오직 수년
간이 가장 잘 하는 시기이다.

○護雛法 ○雛既出籠之 先以粳米爲粥糜一頓飽
食 名曰填嗉 不爾病噎死 然後以粟飯 切若菜燕膏
英爲食 以清水與之 濁則易不易泥塞 臭則死 入水
中不用停父 尋即驅出 此既水禽 不得水即死 臍未
合久在水中冷徹亦死 籠內高乾處 敷細草令寢處
其上 亦以臍未合欲冷也

○병아리 보호법 ○병아리(거위와 집오리새끼
가 이미 둥우리에서 나오면 먼저 찹쌀로 죽을 쑤
어 한차례 배불리 포식시키는 바 이를 진소(填
嗉)라 이름하며 병들어 죽지않게 하고자 함
이다. 그런 연후에 조밥, 무배추등을 썰어 먹
일것이며 맑은 물을 급여할 것이니 물이 탁
한즉 그 정도가 심하던 심하지 않던간에 진흙기
운에 매키기 쉬우며 냄새가 난즉 병아리가 죽게
된다. 물속에 들어가면 너무 오래되지 않게 찾
아 쫓아내야 한다. 이들은 이미 물새들이 되었
으므로 물을 얻지 못하면 죽게된다. 배꼽이 아
물지 않은 채 오랜동안 물속에 있으면 찬기운이
관통되어 또한 죽게 되는 것이다.

병아리가 들 둥우리는 높고 마른 곳이어야 하
나니 잘 곳 위에 가는 풀을 깔아 아물지 않은 배
꼽이 차지 않게 하여야 한다.

○棧鵝易肥法 ○以稻子或小米大麥不計煮熟 先
用磚蓋成小屋 放鴨在內 勿令轉側門 以木撐簽定
其令出頭喫食 日餵三四次 夜多與食 勿令住口 榻
去尾際毳毛 如此三日加肥一斤 ○鵝鴨以土硫黃和
飯 飼之易肥 ○鵝唯食五穀生菜而不食生虫 鴨靡
不食矣

○거위를 용이하게 살찌우는 법 : ○벼나 싸래
기 혹은 보리를 가릴 것없이 삶어 익혀서 먹인다.
먼저 벽돌을 사용하여 소옥(小屋)을 덮고 오리
를 그 안에 놓아 먹인다. 옆문을 여달어 사용하
지 말고 나무창살을 만들어 그 사이로 머리를
내어 찍어 먹도록 한다. 매일 3-4차례 먹이를
먹이고 밤에는 먹이를 많이 주어 입이 쉬지 않
도록한다.

꼬리부분의 잔털과 털을 제거한다. 이와같이
한즉 3일이면 살 한근이 오른다.

○오리와 집오리는 흙과 유황을 밥과 섞어서
먹인즉 쉽게 살이 쯤다. ○거위는 오직 오곡
과 신선한 채소를 먹으며 살아있는 벌레종류를
먹지 않으나 집오리는 먹지 않는것이 없다.

○收卵法 ○雌鳴無雄者 多餵豆粟麥常令肥 飽
則一鴨便生百卵(可食不可菹) ○雌鴨每年五月五
日 不得放擻 只軌餵不與水則 日日生卵 不然或生
或不生 ○以白木作卵形 置菹窠誘之 生時尋即收取
別置煖處以柔草覆之

○鴨卵令雞菹之 雞雛既出替他雞鵝之 恰滿其期
始出鴨雛矣(一云善菹雞則 雖一雞亦能出鴨雛矣)

○鵝能退蛇 警盜而虎聞其聲 便來食之 故夜必
收宿牢圈之

○거위와 집오리의 알을 거두는 법. ○숫놈이
없는 암오리에게 콩 조 보리등을 많이 먹이면
살이 오른다. 배부르게 포식한즉 한마리의 집오
리는 문득 백개의 알을 낳는다(가히 새끼로 부
화시키지 말고 먹는 것이 가하다)

○암놈의 집오리는 매년 5월 5일에는 밖에 내
놓아 방사시키지 말 것이며 다만 먹이만 주되 물
을 주지 않은즉 매일 알을 낳게 된다. 그렇지
않은즉 혹시 알을 낳다가 혹간 알을 낳지 않게
된다.

○환 빛갈의 나무를 알모양으로 깎아서 거위의
둥우리에 넣어두어 알낳기를 유도하며 낳았을때
찾아서 거두어 별도로 따뜻한 곳에 두어 부드러운
풀로 덮어 둘 것이다.

○집오리의 알은 닭에 안끼여 부화시킨다. 닭
의 병아리가 이미 부화되어 나와버리면 다른 닭
을 교체시켜 알을 품도록하면 만기가 되어야 비
로소 집오리의 새끼가 나오게 된다. (일설에 이
르기를 알을 잘 품는 닭은 비록 한마리로도 교
체시키지 않고 능히 집오리 새끼를 부화시켜 낼
수가 있다고 한다.

○거위는 능히 뱀을 물리칠 수 있으며 도적을
경계할 수 있으나 호랑이가 거위의 소리를 듣고
문득 달려와서 잡아 먹으려 하므로 밤에는 반드시
외양간의 우리속에서 잠재우도록 거두어 둘
것이다.

鶴

○但嬰聲清喉者爲上 喙短頸長而瘦脚高者可觀
○雌雄相隨如步 斗狀履跡而孕 又曰雄鳴上風 雌鳴下風 聲交而孕 歲生數卵 雌守卵雄往來衛之 見雌起則啄之 見人窺其卵則 啄破而棄之 常以夜半鳴 雛鶴三年頂赤 七年鬪具 十年十二時鳴 三十年鳴中律(古云鶴不發頂 不能宏其聲)

학, (두루미)

○다만 소리를 필요로 하는바 맑게 우는 자가 으뜸이 된다. 입부리가 짧고 목이 길며 다리가 높고 마른 모양은 가히 불만한 모양을 하고 있다.

○암놈 숫놈이 서로 따라다니며 걸어다니는 보조(步調)가 한결같다. 두(斗)자 모양의 발자국에서 새끼를 밴다하며 또 말하기를 숫놈은 상풍(上風)에서 울고 암놈은 하풍(下風)에서 우는바 우는 소리가 서로 마주쳐서(交) 새끼를 밴다고도 한다. 일년에 수개의 알을 낳는 바 암놈은 알을 지키고 숫놈은 왕래하며 호위한다. 암놈이 일어나 동우리에서 나와 돌아다니면 숫놈이 이

를보고 암놈을 짝는다. 사람이 그 알을 엿본즉 알을 쪼아 깨틀어 버린다. 항상 야반(夜半)에 우는바 학새끼가 3년이 지나면 머리쟁배기가 붉어지고 7년이면 날개를 완전히 갖추며 10년이 되면 12시를(24시간의 뜻) 정확히 알아서 시간마다 울고 30년이 되면 중율(中律)되게 운다고 한다(옛사람들이 이르기를 학은 목을 높이 쳐들지 않으면 굉장한 그 소리가 능히 나지않는다고 한다.)

註 현재까지 살펴본 가금관계 옛문헌에는 그내용이 대체로 최신과학의 학문적내용과 대차없음을 인정할 수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200여전의 과학과 최신과학이 그 원리면에서 크게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으나 유독학(두루미)에 있어서는 과학적이라는 말을 쓰기 어려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예전대 학의 걸어간 발자국(足跡)이나 우는 소리의 교성(交聲)으로 임신이 된다는 것은 가히 미신적인 내용이라 아니할 수 없다.

人事 말씀

新年을 맞아 尊體錦安하삼과 아울러 貴寶業의 日益繁昌하심을 仰祝 하나이다.

敝社는 首都微生物研究所 工場施設을 銀行으로부터 引受받고 自體整備強化하여 正式 稼動하게 되었음을 眞心으로 感謝드리며, 오로지 諸位의 아낌없는 聲援과 敦篤한 協調없이는 成就를 期約할 수 없음을 十分 銘心하는 바입니다.

우선 (前) 首都微生物研究所가 生産製造하였던 全製品을 許可받아 生産製造에 臨하고 있으며 新製品 開發은 勿論 顧客 여러분의 絶對的인 生産業體로서 온갖 정성을 다하여 앞으로 伸長의 기틀을 닦는 마음으로 일하고자 하는 바이오니 외람되오나 貴下의 더욱 倍前의 愛護와 指導鞭撻 있으시길 懇請하는 바입니다.

1972년 12월

서울特別市 永登浦區 九老洞 705~11

株式會社 韓國微生物研究所

代表理事 韓 華 燮 謹拜